

근대 서양 해부학 용어의 수용과 변용에 대한 기호학적 고찰: 유리 로트만의 문화 이론을 중심으로

박소연(고려대학교)

1. 서론

근대 동아시아에 수용된 서구의 해부학은 참으로 지난한 과정을 거쳐 한국 문화에 안착하였다. 일본의 해부학 교과서가 제증원의 해부학 교과서로 번역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으로 수용되었고, 광복 후 여섯 번의 개정을 거치며 한국어 번역 용어가 만들어지기까지 대략 90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구의 지식이 한국으로 밀려드는 혼돈의 시기에 한국은 일본이 만든 한자어 용어들을 간접 수용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해부학 용어 수용 과정은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 특수성을 함축하고 있다.

서구 근대 지식 중에서도 해부학의 수용은 동아시아의 근대 지식 수용의 전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해부학은 서양의학의 기초이며 근대 서구 지식의 특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야로, 기존에 동아시아 전통의학(이하 전통의학)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다른 인체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학문의 이식으로 받아들여진다.¹⁾ 그리고 “동아시

1) 또한 서양 해부학의 수용은 동아시아의 근대화를 견인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는데, 일본의 경우는, 메이지 유신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했고(김활란, 2022, pp. 96-97), 한국의 경우는 근대 지식의 번역을 주도했으며(박준형과 박형우, 2006, p.

아에서 해부학 수용의 문제는 의학의 근대화와 서양 의학의 도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표인 만큼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수용되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김성수와 신규환, 2017, p. 8).

해부학 용어의 수용과 변용 과정은 러시아 문화기호학의 거장인 유리 로트만(Lotman)이 말한 문화의 역동적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Lotman, 1990; Lotman, 2000/2008; Lotman & Clark, 2005). 문화는 고정되지 않고 여러 요소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화한다. 문화 텍스트는 기호계를 이동하기도 하고 기호계의 중심을 차지하기 위해 기존의 텍스트와 경쟁을 하면서 새롭게 재조직화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것을 문화의 역동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 해부학 교재가 번역되면서 해부학 지식이 본격적으로 수용되었고 그 이후 한자어 용어를 사용하다가 점차 한국어 체계 변화에 맞추어 고유어로 재조직화를 이룬다. 이것은 초기에는 ‘전통의학과 서양의학 사이의 긴장’이며, 그 이후는 ‘한자어 용어와 고유어 용어의 긴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체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한국어 체계에 맞게 변용되는 과정이 문화의 역동적 과정에 해당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초기 전통의학과 서양의학 사이의 긴장과 그 이후 한자어 용어와 고유어 용어의 긴장 상태에서 해부학 용어가 어떻게 변화하며 한국의 체계에 맞추어 변화하였는지, 어떻게 토착화되어 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선행연구를 살펴보자면, 의학용어가 아닌 해부학 용어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김경호(2007)와 송영빈(2009)의 연구가 있다. 김경호(2007)의 경우는 한국에서 사용되는 해부학 용어가 일본에서 차용되었음을 보여주며 그 영향과 실태를 보여주는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용해부학(實用解剖學)』과 이를 번역한 『해부학 권1』(1906)에 나타나는 해부학 용어를 비교하며 차용된 용어를 소개하고 음절수에 따른 사례, 표기 방법에 따른 사례, 즉 한글과 한자 병기 표기, 한글과 로마자 병기 표기, 고유

464; 박준형과 박형우, 2011, p. 331), 전문학술용어의 고유어 개정에도 해부학 용어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송영빈 등, 2013, p. 203). 자세한 것은 본문 3장 참조.

어 표기를 소개한다. 송영빈(2009)의 경우는 일본의 해부학 용어의 의미투명도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일본의 한자어 용어가 난해하기 때문에 의미투명도가 떨어지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조어적 측면을 살펴 보며 한자어가 아닌 고유어화를 통한 방안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들 모두 특정시기의 해부학 용어를 살펴본 연구이고, 통시적인 고찰을 한 연구로는 고기석과 정인혁(2017)의 연구가 있다. 저자들이 의학 연구자이며 개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개정 방향과 개정의 과정을 소개한다. 한국의 해부학 용어 개정이 여섯 차례 이루어졌는데, 각 과정마다 개정에 대해 나누어 설명하였다. 개정의 배경, 개정의 방향, 사회의 반응을 기술하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개정의 사례를 개정 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더불어 해부학의 용어가 일본을 거쳐 들어온 만큼 서양의 해부학 용어, 일본의 해부학 용어 역사를 소개했다. 이들의 연구는 통시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본고와 유사점이 있다. 그런데 고기석과 정인혁(2017)의 연구는 개정의 방향과 새로운 용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본고에서는 해부학 용어의 변화를 기호계 안에서 발생하는 문화 현상의 하나로 바라보았고,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유발한 힘의 긴장이 어떻게 용어의 변화로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변화 과정을 로트만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2장에서는 로트만 이론의 핵심 개념인 기호계, 대화, 폭발 개념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한국의 해부학 용어에서 시기의 순서대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기호계 안에서 나타나는 역동적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로트만(Lotman)은 “문화를 비유전적 정보의 총체이며, [...] 제한된 어떤 집단의 공통의 기억”으로 정의한 바 있다(2000/2008, p. 225). 추상적인 개념들이 경험을 통해 기억 속에 축적되는데 언어가 “주형 장치”가 되어 구조화되고 텍스트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Lotman, 2000/2008, p. 66). 문화는 “집단에 의해 이미 경험된 기억의 기록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과거의

역사적 경험들과 관련된다”(Lotman, 2000/2008, p. 69). 따라서 경험되지 않은 지식은 언어로 번역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집단의 기억인 문화는 세 가지 방식으로 전승되는데, “첫째, 지식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 둘째, 구조 안에서의 재배치이다”. 재배치란 기억될 것과 망각될 것의 선택을 말한다. “셋째, 망각이다”(Lotman, 2000/2008, p. 72). 기억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어 무한대로 저장될 수 없다(Lotman, 2000/2008, p. 73). 따라서 “문화가 보다 엄격한 조직성을 부여 받게 되면서 그것이 가진 일련의 측면은 비구조적인 것, 다시 말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선언된다”(Lotman, 2000/2008, p. 220). “이렇게 해서 문화의 기억으로부터 ‘올바르지 못한’ 텍스트들이 대규모로 제거되는 일이 발생한다”(Lotman, 2000/2008, p. 220). 텍스트의 요소로 번역 가능한 사건들은 기록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선언되는 것들은 망각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기억해야만 할 사실들을 취사 선택하는 일은 매번 해당 문화의 기호학적 규범들을 기초로 실현된다”(Lotman, 2000/2008, p. 72). 이 모든 과정은 기호계 안에서 발생한다.

2.1 기호계(중심-주변 모델, 경계)

다음은 문화 현상이 나타나는 기호계에 대해 알아보자. 기호계는 “개별 텍스트와 개별 언어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총체”라고 볼 수 있다(Lotman & Clark, 2005, p. 208). 기호계의 핵심적 속성은 “이질성”과 “비대칭성”(Lotman, 1990, p. 125)이라는 점인데, “비대칭성은 기호계의 중심과 주변 사이의 관계 속에서 분명해진다”(Lotman, 1990, p. 127). 기호계의 중심은 “자기 기술의 과정에서 스스로의 문법 [즉, 규범]을 창조한다”(Lotman, 1990, p. 128). 그리고 “이 규범들에 상응하는 것만이 행위”로 인정되며 “[...] 규범에서 벗어난다면 그러한 행동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을 것이며 적절치 못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Lotman, 1990, p. 129). 즉, 중심에 위치한 것들이 기호계를 지배하며, 중심의 지배 규칙에서 볼 때 무의미하고 이질적인 것들은 배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호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계의 존재이다. “기호학적 경계는 텍스트가 통과하는 이중언어로 번역 가능한 필터들의 총합”이다(Lotman & Clark,

2005, pp. 208-209). 경계는 “분리와 통합을 모두 이행하며 양쪽 모두에 속한 양가적인 영역”이며 “기호계 안에서 가장 뜨거운 지점”이기도 하다. 경계에서는 이질적인 기호학적 텍스트들이 우리의 언어로 번역되며 그것은 외적인 것이 내적인 것으로 변형이 이루어지는데(Lotman, 1990, p. 136), 여기서 유념할 사실은 기호계 안에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중심과 주변이 존재하고 이들 사이에는 경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외적인 것으로부터 내부 공간을 분리시키는 경계의 개념은 대략적인 일차적 구분이다. 실제로 기호계의 전체 공간은 상이한 차원의 경계들, 상이한 언어들, 심지어 상이한 텍스트들의 경계들에 의해 분리”된다(Lotman, 1990, p. 138).

2.2 대화

기호계에서 문화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대화’이다. 로트만 이론에서 대화는 “번역의 기본 메커니즘”이며(Lotman, 1990, p. 143) “기호계의 가장자리는 끊임없는 대화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Lotman, 1990, p. 142). 대화가 가능하려면 우선 “비대칭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비대칭성은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차이가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고 “차이가 절대적”이라면 “대화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Lotman, 1990, p. 143). 반드시 수신과 발신의 교차가 일어난다는 것이 대화의 특징인데 대화에서 수신은 다섯 가지 단계를 거친다(Lotman, 1990, pp. 146-147).

1단계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텍스트는 가치 척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며 진실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기원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Lotman, 1990, p. 146). 반면에 기존에 존재하던 텍스트는 “낮은 평가를 받으며, 거짓되며 저속하고 미개한 것으로 분류된다”(Lotman, 1990, p. 146). 즉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이상화가 일어난다. 2단계는 “과거와의 연결을 회복시키고 뿌리를 찾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Lotman, 1990, p. 147). “번역, 모방, 각색이 활발해지고”(Lotman, 1990, p. 146), “새로운 텍스트를 기존의 텍스트의 연속체로 해석하면서 기존의 텍스트가 재평가된다”(Lotman, 1990, p. 146). 3단계에서는 “수용 문화의 중심에서 [...] 진정한, ‘자연스러운’ 터전을 발견하게 된다고 여겨진다”(Lotman, 1990, p. 147). 수용자의 문화가 중심이 되어 기존 문화가 진실하고 자연스러움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고 기존 텍

스트의 민족적 특징이 중요시된다. 즉 수용된 문화가 기존의 문화의 규칙에 맞추어 새롭게 재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4단계에서는 수용된 텍스트의 “비대칭적 변형을 통해 새롭고 독창적인 구조적 모델로 완전히 변형된다”(Lotman, 1990, p. 147). 최종적으로 5단계에서 독자적으로 완성된 문화는 다른 새로운 기호계에 영향을 준다(Lotman, 1990, p. 147).

표 1

로트만의 문화 수용 단계(Lotman, 1990, pp. 146-147)

단계	문화 수용의 과정
1단계	수용된 텍스트의 이상화
2단계	기존 텍스트의 복구
3단계	기존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재조직화
4단계	완전한 융합
5단계	발신으로의 전환

이 수용 단계에서 기존 텍스트와 유입된 텍스트의 힘의 긴장을 볼 수 있으며 중심을 차지하는 텍스트는 시대마다 다르며 그 텍스트가 규범이 된다.

2.3 폭발

폭발은 로트만의 문화 이론의 수립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성립된 개념이며 문화의 역동성을 이끄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다. 기호계 안에서 중심과 주변의 전복을 일으키는 원천으로 극적인 역사적 변화의 시기가 여기에 해당된다(Lotman, 1990, p. 145).

로트만(Lotman, 2000/2014, p. 9)에 따르면 역사의 과정은 ‘폭발의 순간’과 ‘점진적 과정’ 두 가지 유형의 반복적 진행으로 이어진다. 두 과정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도 “실제 역사에서는 역동적인 발전의 단계와 그 뒤를 잇는 정상화 단계의 균등하고 순차적인 교체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Lotman, 2000/2008, p. 335). 또한 폭발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것이 반드시 다음 단계로 이어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공동체 집단에 “유익한 것은 집단 속에 정착되지만 우연적이고 개인적인 것은 잊혀”지게 된다(Lotman, 2000/2008, p. 339).

“분기점의 국면에서는 새로운 행위의 가능성이 예측 불가능하게 증가”한다(Lotman, 2000/2008, p. 340). 즉 인과성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예측 불가능하며 결정되지 않은 가능성들의 집합으로 나타나는데 “원인과 결과 사이에 그 관계의 자동성을 제거하는 지능적 선택이 자리잡게 된다”(Lotman, 2000/2008, p. 326). 여기서 지능적 선택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존재”, 즉 지적인 능력을 소유한 대상이 관여한다는 것으로 “역사는 '사유하는 존재의 개입'과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는 역사가 분기점에 이르렀을 때, 우연의 메커니즘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의 메커니즘 또한 작동하며, 이러한 의식적인 선택이 역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Lotman, 1990, p. 232). 이때 지능적 선택에는 “책임”과 “윤리적 행동”을 동반한다(S. H. Kim, 2014, p. 21).

해부학 수용과 변용의 역사는 초기에는 기호계에서 기호계 사이의 공간적 이동으로, 그 이후에는 하나의 기호계 안에서 내적 번역이 이루어지는 시간적 이동으로 나타난다. 서양의 근대 해부학이 동아시아로 들어온 것은 기호계와 기호계 사이의 공간적 이동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로트만이 말한 ‘폭발’로 인해 야기된 것이며 폭발 이후의 모든 가치 체계는 전복된다. 그러면서 기호계 내의 재조직화가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도 역시 기호계 내의 중심을 차지하기 위한 힘의 긴장이 일어난다. 이것이 한국의 해부학 용어에는 한자어 표기와 고유어 표기라는 긴장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3. 해부학 용어 수용과 변용에 대한 분석

근대 서양 문명에서 시작된 문화적 폭발은 동아시아의 문화권까지 여파를 미쳤다. 대표적인 것이 해부학 지식이다. “고대 동서양에서 해부 지식은 단순히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학 지식 중 하나가 아니라,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본질적인 지식이었다”(김성수와 신규환, 2017, p. 6). “고대 서양에서는 몸에 대한 이해가 신의 섭리를 파악하는 것”이었고, 고대 동아시아에서

는 “우주의 원리와 인간 세계의 원리가 구현된 공간을 인식하는 일이었던 것이다”(김성수와 신규환, 2017, p. 6). 이러한 신체관을 바탕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방식이 결정되었다. 고대 시대에는 동서양 모두 “인체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고 그것이 깨졌을 때 질병이 발생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몸을 이해하고 인체의 각 부분의 기능을 알아야 질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해부학은 의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다(김성수와 신규환, 2017, p. 6). 더불어 몸에 대한 이해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 특히 해부학 용어에 대한 필요성은 “인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도구”이며 의료진들,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기 때문이다(엄창섭, 2018, p. 6). 서양의학에서는 과학 혁명 이후 실증적 방법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관찰의 필요성과, 인체에 대한 물질론적 관점과 기계론적 관점이 부각되면서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인체 해부가 활발해졌다. 인체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동양과 서양의 신체관이 달라졌다. 이렇게 다른 신체관을 가진 서양의학이 동아시아에 들어오면서 신체를 표현하는 언어도 달라지게 되었다.

해부학이 수용된 후 오랜 시간에 걸쳐 해부학 용어 역시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초기 제증원의 교과서 『해부학』의 번역을 시작으로²⁾ 한국의 해부학 용어 개정은 1978년, 1981년, 1990년, 1996년, 2005년, 2014년 총 여섯 번의 개정이 있었다. 해부학 교과서의 수용과 해부학 용어의 여섯 번의 개정에 대해 개정 방향과 특징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Kim & Park, in press). 첫 번째는 제증원의 해부학 교과서 『해부학』의 번역이다. 김필순이 일본의 이마다 쓰카누(今田束)가 쓴 『실용해부학(實用解剖學)』을 번역한 책이다. 이 책은 순수 한글로 표기된 최초의 한국어 해부학 교과서로, 본격적으로 한국의 의학 문화에 들어왔음을 의미한다(박준형과 박형우, 2006, p. 467). 두 번째는 해부학 용어의 1차와 2차³⁾ 개정이다. 1978년과

2) 번역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해부학 교재이나 원고의 소실로 출판은 『약물학(상권)』(1905)이 먼저 나온다. 에비슨은 그레이의 『해부학』의 번역을 마쳤으나, 조수가 죽으면서 원고가 소실되었고, 두 번째 다시 번역을 착수하여 번역을 완료하였으나, 출판을 앞두고 또다시 화재로 원고를 소실하게 되어, 결국 일본의 해부학서 『실용해부학』을 다시 번역하여 출판하게 되는데, 이때가 1906년이다(박준형과 박형우, 2006, pp. 462-463; 박준형과 박형우, 2011, p. 329).

3) 용어의 개정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로 표기하고 용어집에 대해서

1981년에 시행된 이 개정은 당시 일제 강점기에 사용되던 용어를 정리하는 수준으로 개정되었다(고기석과 정인혁, 2017, p. 121). 이때의 개정은 한국어에 맞는 용어 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내포한다(대한해부학회, 1978, 머리말). 세 번째는 3차와 4차의 개정이다. 3차(1990년)와 4차(1996년) 개정은 용어 개정의 기본 방향을 “우리말다운 용어”를 만드는 것으로 정하였다(고기석과 정인혁, 2017, p. 124). 우선 “갑자기 용어를 바꾸는 것에 대해 큰 저항을 우려하여” 3차 용어 개정(1990년)에는 일부를 개정했고 이후 4차 개정(1996년)에서는 3차에서 개정하지 못한 용어를 개정했다(고기석과 정인혁, 2017, p. 124). 네 번째는 5차(2005년)와 6차(2014년)의 개정이다. 이때의 개정은 개정된 용어가 잘 정착되도록 다듬는 단계로 설명될 수 있다(대한해부학회, 2005, 머리말) 그리고 각 단계별로 개정이 갖는 의의를 제시하였다(Kim & Park, in press). 각 개정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 표로 정리될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해부학 용어 개정과 의의(Kim & Park, in press)⁴⁾

시기	해부학 용어 개정 과정	의의
1	제중원의 교과서 『해부학』 번역	수용
2	1차(1978년), 2차(1981년)	토대수립
3	3판(1990년), 4차(1996년)	개정
4	5차(2005년), 6차(2014년)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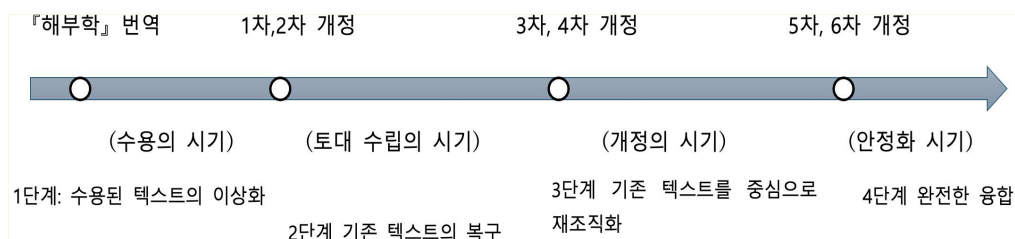
용어 개정의 단계는 해부학이 한국의 토양에 정착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하나의 텍스트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의 수용 과정을 메타적으로 설명한 로트만의 문화 수용 단계는 한국의 해부학 수용 그리고 개정 과정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로트만의 문화 수용 단계에 해부학 용어 개정 과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기 구분을 하고 각 시기를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그림 1>).

는 1판, 2판, 3판, 4판, 5판, 6판으로 표기하였다.

- 4) 김과 박(Kim & Park, in press)이 나눈 시기 구분과 특성을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표를 수정, 재구성한 것이다.

1단계는 수용의 시기로, 제중원의 해부학 교과서가 번역되면서 해부학 용어가 본격적으로 수용되는 시기부터 1차 개정 전까지, 2단계는 토대 수립의 시기로, 1차(1978년)와 2차(1981년) 개정부터 3차(1990년)와 4차(1996년) 개정 전까지로, 이 시기는 한국의 독립 이후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한자도 병기한 형태로 개정했으므로 한자어와 고유어 표현이 연결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3단계는 개정의 시기로, 기존 문화의 규칙에 맞춰 재조직화되는 시기이며 한국어 고유어로 개정된 3차(1990년)와 4차(1996년) 개정 시기부터 5차(2005년)와 6차(2014년) 개정 전까지이다. 완전하게 흡수되는 4단계는 안정화의 시기이며 현재 한국어 용어를 다듬어서 정착시키는 5차(2005년), 6차(2014년) 개정부터 현재에 해당한다(Kim & Park, in press).

그림 1
해부학 지식 수용의 과정⁵⁾



해부학 지식의 수용은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 지식의 확장이 일어난 것이며 이 지식에 대해 기억해야 할 것들과 망각될 것들의 재배치가 일어난 것이다. 또한 해부학 용어는 개정 용어집이 발행될 때마다 용어의 수가 증가하는데, 이 역시 지식의 확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표 3> 참조).

5) 김과 박(Kim & Park, in press)의 연구에서 제시한 시기 구분과 로트만의 수용 단계를 연결하여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표 3

해부학 용어의 변화⁶⁾

(대한해부학회, 1978; 대한해부학회, 1990;

대한해부학회, 1996; 대한해부학회, 2005; 今田東, 1888/2018)

연도	대상	판본	용어 수
1906	『해부학』 권1, 2, 3		약 2,616개
1978	해부학용어집	1판	약 5,855개
1990	해부학용어집	3판	약 6,429개
1996	해부학용어집	4판	약 6,476개
2005	해부학용어집	5판	약 7,729개

1단계에서는 일본의 영향력이 큰 시기였고 서양의학이 기호계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서양의학은 기억될 것, 전통의학은 망각될 것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일본어의 차용이라는 방법으로 용어가 수용되었다. 2단계에서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여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졌고 따라서 일본에서 차용한 한자어 용어가 한국어 체계에 맞게 변화하는 지식의 재배치가 일어난다. 이후 3단계에서는 한자어 용어와 고유어 용어의 위상이 변화하며 지식의 재배치가 반복된다. 한국 문화에 맞는 해부학 용어로 재조직화되는 것이다. 각 시기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3.1 1단계 수용의 시기: 수용된 텍스트의 이상화

이 단계는 동아시아의 모든 가치가 뒤집어지는 거대한 폭발의 시기이다. 해부학의 수용 역시 ‘폭발’로부터 시작되었다⁷⁾. 당시 근대 서구의 지식이 물밀듯이 들어와, 한국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고 기존의 동아시아의 가치 체계들이 비과학적이며 저속하고 미개한 것으로 취급되며 주변으로 밀려났다. 반면, 서구의 지식은 정확한 것, 합리적인 것, 우월한 것으로 인정받

6) 이마다 쓰카누(今田東, 1888/2018), 대한해부학회(1978, 1990, 1996, 2005)의 원 자료를 바탕으로 김과 박(Kim & Park, in press)에서 제시한 표를 수정, 보완하였다.

7) 이 시기에 유입된 근대 지식들은 일본 강점기라는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문이 일본을 통한 간접 수용으로 이루어졌고, 이중 언어학의 수용 역시 이를 잘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김성도, 2003, p. 14; S. D. Kim, 2018, pp. 14-15).

으며 중심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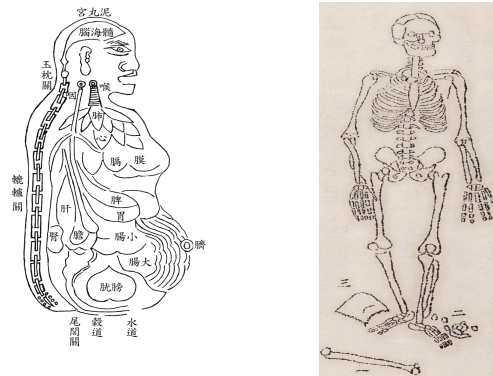
이 시기는 문화 수용의 1단계에 해당되며 유입된 문화가 기존 문화에 대해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는 단계이다. 이때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통의학이 저평가되는데 특히 일본은 조선의 후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전통의학을 억누르고 서양의학의 우월성을 강조했다.⁸⁾ 제중원 설립자인 알렌이나, 제중원의 원장이며 해부학을 번역한 에비슨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당시 한국은 매우 열악한 위생 환경 속에 있었고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등 온갖 질병이 만연했다. 그러나 과학적 치료가 아닌 민간 신앙에 의지하는 한국인들을 보며 서양의학의 전파가 급선무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서양의학을 우월한 지위로 격상시켰고 전통의학을 전근대 의료 체계로 부정하게 된다(Avison, 1940/2010, p. 233). 이같은 맥락에서 서양의학은 “몸에 대한 권력의 지배”로 작동했다(박윤재, 2005, p. 432). 개인의 신체에 대한 권력을 행사했으며 국가 위생이라는 명목으로 제국주의의 통치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기존의 전통의학에서는 인체를 자연의 일부로 보고 우주와 인체를 대우주와 소우주의 관계로 보았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며 몸 안에 장기들은 음양오행으로 설명되며 조화롭고 균형 있게 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장기들의 정확한 생김새, 크기, 무게 위치는 중요하지 않았다(김성수와 신규환, 2017, pp. 247-248). 전통의학에서는 인체 내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을 ‘장부도’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각 장기들이 서로 짝을 이루는 오장육부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다(김성수와 신규환, 2017, p. 247). 그러나 신체관의 변화로 ‘장부도’는 ‘해부도’로 변화했다. ‘장부도’는 오장육부의 조화를 보여주지만 ‘해부도’는 인체 부위를 하나하나 분리해 위치와 기능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설명한다.

8) 근대 의학사에서 우두법과 제중원은 서양의학의 신화 만들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박윤재, 2005, p. 431).

그림 2

『동의보감』의 「신형장부도」와 『해부학』에 수록된 해부도
(한의학고전DB, n.d.; 今田東, 1888/2018)



해부학의 어원적 의미에 의하면 해부란 인체 부분을 분리한다는 뜻이다. 서양의학은 ‘기계론적, 물질론적 신체관’에 바탕을 두고 있어 몸과 마음을 나누게 되었고 장기들을 기계 부속처럼 이해했다. “마음과 분리된 몸은 작동 원리를 알아내야 할 물질적인 대상이 되었고 죽은 사람의 몸을 큰 죄책감 없이 해부하여 관찰하기 시작했다”(국립한글박물관, 2018, p. 55). 서양 해부학에서는 인체 부분들을 위치와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데, 골격계, 근육계, 신경계, 내장기관, 근육기관, 감각기관이라는 범주는 이러한 신체관에서 나온 것이다. 인체를 세세하게 나누다보니 각 부분에 이름이 필요해졌고 여기에 이름을 붙인 것이 해부학 용어이다.

대개 해부라는 말은 원래 ANATOMIA에서 유래했는데 유기체에서 각 조직을 잘라 찢는다는 뜻이다. (今田東, 1888/2018)

1906년 김필순이 번역한 제중원의 해부학 교과서 『해부학』⁹⁾의 머리말에

- 9) 1906년 한글 해부학 교과서의 발간으로 한국어 해부학용어의 번역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서양의학 지식을 우리말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여 한국에 뿌리내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이후의 다른 한글 교과서들의 출판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경험이 다른 의학 교과서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김영수, 2018, p. 93). 이마다 쓰카누의 『실용해부학』은 김필순 외에 유병필에 의해서도 번역되는데 이것은 한자어 중심의 번역이었다(고은숙, 2018, p.

보면 해부학은 몸을 잘라짓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해부학 교과서가 번역되면서 약 3천여 개의 해부학 용어가 들어온다. 언어는 문화를 구조화하기 때문에 해부학 용어가 번역되어 들어왔다는 것은 신체관의 인식론적 재조직화를 수반한다는 것을 뜻한다.

무엇보다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은 인체의 범위가 다르다. 전통의학에서는 오장육부 중심의 복부가 인체 범위의 전부였지만¹⁰⁾ 서양의학에서는 인체를 머리에서 발끝까지로 보는데 이것은 “인체 범위의 확장”을 의미한다(김성수와 신규환, 2017, p. 160). 이것은 지식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몸의 중심도 심장에서 뇌로 옮겨간다(김성수와 신규환, 2017, p. 279). 전통의학에서는 심장이 몸의 중심이고 심장은 복부에 있다고 생각했으며 모든 장기들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몸의 장기들은 평등하며 위계가 없다고 인식되었다. 그런데 서양의학에서는 인체의 중심은 뇌이며 뇌가 몸의 모든 장기를 관장하기 때문에 가장 우위에 있다. 장기들 사이에 위계가 생긴 것이다.

『해부학』¹¹⁾이 번역될 당시, 제중원에서 『신편생리교과서』를 비롯해 의학 교육을 위한 교재가 출판되고, 이후 중고등 교육을 위해서도 여러 권의 교재가 번역된다.¹²⁾ 여기에는 해부 지식이 포함되는데, 근대화의 목적이 “전통적인 신체관에서 벗어나 근대적, 과학적 신체관”을 정립하여 “보건, 위생의 문제”까지 연결짓는 것이 목적이었다. 신체관의 변화가 곧 근대화였음을 알 수 있고 신체관 변화가 사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박준형과 박형우, 2012, p. 505).

특히 근대 교육, 고등 교육의 최대 수혜자가 상류층이고, 서양의료를 접

115; 김영수, 2018, p. 80).

10) 전통의학에서 팔다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의학에서 다루어야 할 인체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인체 범위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김성수와 신규환, 2017, p. 160, p. 247)

11) 일본의 해부학은 영미 해부학의 수용에서 독일 해부학의 수용으로 변화하는데 김필순이 번역한 『해부학』의 원서인 일본의 『실용해부학』은 독일해부학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阿知波五郎, 1976, p. 234). 따라서 한국에 들어온 해부학은 독일 해부학의 전통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12) 『약물학 상권(무기질)』(1905), 『신편생리교과서』(1906), 『신편화학교과서(무기질, 유기질)』(1906, 1909), 『진단학(권1,2)』과 같은 교재가 있다(박준형과 박형우, 2012, p. 478).

할 수 있는 계층 역시 상류층이었으며, 한의학에 대한 억제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시대적 상황에서(신동원, 2003, p. 126), 서민들에게는 역으로 서양의학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황상익, 1998, p. 283). 그렇지만 “한글 해부학 교과서의 출판은 한문을 아는 일부 상위 계층에만 한정되지 않는 더 넓은 의학교육의 장을 마련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김영수, 2018, p. 95).

문화의 텍스트는 세계상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부학 텍스트는 인체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때 인체를 기술하는 언어가 해부학 용어이다. 신체관이 달라지면서 “서양의학의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는 말들이 생겨나”고 “몸에 대한 전통적 세계관과 어휘 체계가 달라졌고 [...] 문학작품이나 신체 활동과 관련한 체육 분야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은숙, 2018, p. 102). 한국어에 몸에 대한 새로운 언어들이 탄생했다는 것을 소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경’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만든 대표적 해부학 용어이다. 근대 한국의 신소설 이인직의 『혈의 누』와 이해조의 『빈상설』에서 ‘신경’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음은 새로운 인체 용어가 대중에게도 퍼져나갔음을 의미한다.

빠르던 기차가 차차 천천히 가다가 딱 멈추면서 반동되어 뒤로 물러나
니 섰던 옥련이가 넘어지며 손으로 서생의 다리를 잡으니, 공교히 서생
다리의 신경맥을 짚은지라. (이인직, 1906/2008, p. 62)

구학문으로 말하면 오장육부에 정신보가 빠졌다고 할 만하고 신학문으로
말하면 뇌에 피가 말라 신경이 희미하다 할 만한.... (이해조, 1907/2008 p. 51)

로트만의 문화기호학에서 제시된 폭발의 시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속성은 예측불가능성이다(Lotman, 2000/2008, p. 347).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래 문화를 수용하는 것은 주체의 선택에 달렸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상이한 주체의 관이하게 다른 선택으로 운명이 달라졌다. 서양의 해부학이 일본에서는 빠르게 수용됐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일본의 경우, 1744년에 『해체신

서』가 나오고, 해부학은 서양을 배우고자 하는 난학의 불씨가 되었으며 이후 메이지 유신까지 이어져 근대화에 성공하게 된다¹³⁾(김활란, 2022, pp. 96-97). 『해체신서』 이후, 『중정해체신서(重訂解體新書)』, 『의범제강(醫範提綱)』, 『해부훈몽(解剖訓蒙)』, 『해부람요(解剖攬要)』가 출판되고도 수많은 해부학 책이 나왔는데 “저자에 따라 사용한 용어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때 사용한 용어를 바탕으로” 일본 해부학회가 이를 국제해부학 용어에 맞추어 통일한 것이 1931년의 일이다(송영빈 등, 2013, p. 164). 해부학 용어의 정립까지 약 180여 년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반면에 한국은 서구 지식을 소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근대화의 시기를 놓치고 결국 일본이 만든 용어를 간접 수용하는데 머물렀다. 이후 일본에 합병되면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해부학 용어의 한국어 번역은 더욱 지연된다.

3.2 2단계 토대 수립의 시기: 기존 텍스트의 복구

한국은 독립을 맞이하고도 한국 전쟁이라는 또 한 차례의 격동의 시기를 보낸 후에야 점차 안정기에 들어갔다. 폭발의 시기가 지나면 점진적 시기가 찾아오는데 이때가 점진적 시기에 해당한다. 독립 후 한국어를 되찾았으나 일제 강점기에 사용하던 일본 해부학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1차 용어 개정(1978년)이 시작되기 이전인 1955년도 해부학 교재(김사달, 1955)에는 당시 사용되던 한자어 용어를 볼 수 있다. 여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 인체에 대한 일상 언어를 함께 표기하였는데 이는 고유어 인체 용어가 해부학 용어 체계에서는 주변으로 밀려나 잉어로 존재했지만 일상에서는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한자어 용어가 여전히 힘의 중심을 차지하여 정식 용어로 인정받고 있지만 한국어의 위상이 부상하면서 해부학 교재에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해부학 용어가 중심부의 언어로는 한자어가 기억되고 고유어는 망

13) 일본에서의 『해체신서』의 번역은 단순히 해부학 서적의 번역이라는 의미 이상을 가지는데, 이것은 일본인들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관심에서 나아가 믿음을 안겨 주었다. 더불어 지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번역은 서양 지식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김성수와 신규환, 2017, p. 173, p. 181).

각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상에서는 완전히 망각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고유어 인체 용어와 한자어 인체 용어 (김사달, 1955; 대한해부학회, 1978)

라틴어 표기 ¹⁴⁾	1955년 해부학 교재	1판 용어
Diaphragma	가로막; 횡격막(橫膈膜)	횡격막(橫膈膜)
Vesica biliaris	쓸개; 담낭(膽囊)	담낭(膽囊)
Glandula parotidea	귀밑샘; 이하선(耳下腺)	이하선(耳下腺)
Pulmones	허파; 폐(肺)	폐(肺)
Ren	콩팥; 신장(腎臟)	신장(腎臟)
Rectum	곧창자; 직장(直腸)	직장(直腸)
Intestinum tenue	작은창자; 소장(小腸)	소장(小腸)

1970년도 해부학 교재(백상호, 1970)에서는 한글 표기와 영어 용어만을 표기했는데 한자 표기가 없어 동음이의어로 인해 혼동이 생겼고 이에 대책 뒤편에 영어 표기를 병기하며 동음이의어의 용어들에 대해 설명을 따로 붙여 두었다(<표 5> 참조).

표 5

해부학 기본용어의 동음이의어 (백상호, 1970)

	영어 표기	의미	한자 용어	고유어 용어
구	ball, bulb	공모양의 구조물	球	망울
	Orifice	관, 강 또는 입구	口	구멍
	Groove, sulcus	얕게 파진 홈	溝	고랑
각	angle horn	뿔 모양으로 돌출된 구조물	角	뿔
	Crus	다리 모양의 구조물	脚	다리
극	spire	가시모양의 뾰족한 돌기	棘	가시

14) 라틴어 표기는 6판(2014년) 용어집의 표기를 따랐다.

	Space	어떤 구조물과 다른 구조물 사이에 생긴 틈	隙	공간
	pole	구형의 물체 끝	極	끝

해부학 용어는 교재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경험이 축적되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71년의 해부학 교재(권홍식, 1971)에는 한자어 용어를 그대로 한글로 표기하였고 영어나 라틴어, 한자를 함께 병기하였다. 이 책에는 “해부학이 한국에서 성립한 학문이 아니라서 해부학 용어를 번역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며 한국어 해부학 용어 정립의 어려움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더군다나 “의학 교육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낱말과 고교생의 생물학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낱말마저 통일되어 있지 않아 정비가 필요한 상태”임을 밝히고 있다(권홍식, 1971, 머리말). 문화는 지속된 경험의 축적이며 이는 언어를 통해 구조화된다. 따라서 구체적 경험에 기반하여 과거의 지식들이 번역되어야 하는데, 해부학 지식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하면서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어에 맞는 과학 용어의 수립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고기석과 정인혁, 2017, p. 120). 그리하여 1차 용어의 개정을 단행했는데 우선 용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약 6,000여 개 해부학용어를 정비하여, 1978년 첫 번째 해부학 용어집을 발간하였다(대한해부학회, 1978, 머리말) 여기서는 “일본에서 차용한 한자어들을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속에 한자를 표기했다”. 한자어로 된 1음절의 용어에는 2음절로 된 용어를 하나 더 추가하여 두 개의 용어로 겸용한 경우가 있고, 몸 부위의 용어에 고유어의 용어를 추가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족(足, Foot)’에는 발을 함께 표시하였다”(Kim & Park, in press)(<표 6> 참조). 몸에 대한 고유어이기 때문에 한자어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표 6

기존 문화와 수용된 문화의 연결¹⁵⁾
(대한해부학회, 1978; Kim & Park, in press)

1판 용어 고유어와 한자어의 병기 예시	
Facies	얼굴, 안면(顔面)
Nasus	코, 비(鼻)
Os	입, 구(口)
Collum	목, 경(頸)
Dorsum	등, 배(背)
Abdomen	배, 복(腹)
Pes	발, 족(足)

이것은 로트만의 문화 수용 과정에서 2단계인 수용된 문화와 기존 문화가 연결되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이전 단계에서 나타난 유입 문화에 대한 이상화에서 벗어나, 기존 문화의 뿌리를 찾고자 하면서 새로운 텍스트를 과거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시기이다. 주변으로 완전히 밀려나 있던 고유어 인체 표현들이 규범이 변화하며 체계 안에 등장해 중심을 향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규범에서 벗어나 있던 고유어 용어가 체계외적인 것에서 체계내적인 것으로 전환된 것이다. 즉 망각의 상태에서 기억의 상태로 바뀌었다.

과거에 『해부학』을 번역할 당시에는 한자어로 된 해부학 용어 대부분이 “이마다의 원본과 특별히 다”르지 않았고 그럼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당시 통용되던 한자”였기 때문이다(박준형과 박형우, 2006, p. 467). 하지만 한국어 구조와 문화가 변화하면서 “용어 중에 현재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자주 보이며” 이 용어들은 이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박준형과 박형우, 2006, p. 467). 이러한 문제를 고유어를 덧붙여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 단계는 한국어 문화에 맞는 해부학 용어로 다가가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아직 한국어 문화에 맞는 완전한 재조직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

15) 대한해부학회(1978)의 원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김과 박(Kim & Park, in press)에서 제시한 표를 그대로 재현하였다.

지만 1차 용어 개정(1978년)은 기존에 정비되지 않았던 용어를 정리하여 한국어 해부학 용어를 다듬어가는데 밑거름이 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1차 개정에서 한자 용어를 한글로 표기하면서 동음이의어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앞에 1970년도 해부학 교재(백상호, 1970)에서도 언급했던 문제로, 한자를 보면 뜻을 알 수 있지만 한자를 보지 않을 경우 의미가 불분명해진다. 특히 ‘배’의 경우, “한자어 ‘배(背)’는 ‘등’을 의미하는데 고유어 ‘배’와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어 소리만으로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표 6〉 참조). 동음이의어로 인해 발생하는 의미의 불투명성 역시 일본어 용어 차용에서 비롯된 것이다(Kim & Park, in press). “대부분 용어가 일본의 한자 용어를 우리말 소리와 한자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소리만으로 들었을 때 혼동이 오는 용어가 많았고 한자가 없으면 구별이 되지 않는 용어도 있었다”(고기석과 정인혁, 2017, p. 121).

의미 불투명성의 문제는 2음절 용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엉덩뼈’를 의미하는 ‘장골’은 ‘긴뼈’를 의미하는 ‘장골’과 동음이며 ‘코뼈’와 ‘종아리뼈’도 동일한 ‘비골’로 표기된다. 코뼈는 3차 개정(1990년)에서 ‘비근골’로 개정된다(〈표 7〉 참조). 한자어 용어의 경우는 음절수가 짧아 경제적이지만 의미 투명성은 떨어진다(Kim & Park, in press). 하지만 〈표 6〉을 보면 고유어를 활용할 때 의미불투명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이 밑거름이 되어 이후 수용문화에 맞는 재조직화, 즉 고유어화로 나아가게 된다.

표 7

뼈 이름의 동음이의어¹⁶⁾

(대한해부학회, 1978; 대한해부학회, 1990; 대한해부학회, 1996; Kim & Park, in press)

	1판 용어	3판 용어	4판 용어
Os longum	장골(長骨)	긴뼈	긴뼈
Os ilium	장골(腸骨)	장골	엉덩뼈[장골]
Os nasale	비골(鼻骨)	비근골	코뼈[비근골]
Fibula	비골(腓骨)	비골	종아리뼈[비골]

16) 대한해부학회(1978, 1990, 1996)의 원 자료와 김과 박(Kim & Park, in press)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재구성하였다.

지금까지 수용문화에 맞게 재조직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로트만의 문화 수용 2단계에 나타나는 기존문화와 수용문화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용된 문화와 기존 문화가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지식의 재배치가 일어나 체계외적인 고유어 용어들이 체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국어 체계에 맞는 용어의 개정이 한층 더 필요해졌다. 즉 중심에 위치해 있던 한자어 용어와 중심을 차지하려고 하는 고유어 용어의 힘의 크기가 거의 비슷해졌다. 다음 단계에서는 한국어 규칙에 맞추어 재구조화되며 차차 한자어 용어는 사라지게 된다.

3.3 3단계 개정의 시기: 기존 텍스트가 중심이 되는 재조직화

본격적으로 한자어에서 고유어로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시기로, “한글 용어를 우선 쓰며 한자 중에서도 쉬운 한자말을 쓰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고기석과 정인혁, 2017, p. 124). 즉 언어내 번역이 일어난 셈인데, 문화 수용의 3단계는 수용된 문화가 기존 문화의 규칙에 맞추어 재조직화되는 단계이다. 3차(1990년)와 4차(1996년) 용어 개정에 걸쳐 용어들 대다수가 고유어로 바뀌었고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다.

이것은 폭발의 시기에 발생한 또 하나의 전복에서 기인한다. 바로 한국어 문자 체계의 전복이다. 기호계 안에 여러 층위에서 크고 작은 폭발은 항상 존재하며 이것은 다른 층위 간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Lotman, 2000/2008, p. 336), 근대화 시기에 발생한 또 다른 층위의 폭발의 여파가 90년대에 나타난 것이다. 한자 표기가 중심이 되던 한국의 문자 체계는 갑오개혁(1894년)을 통해 한글의 지위가 격상됐고 1948년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한글의 우세 속에서 1960년대부터는 한자 표기 비중이 서서히 줄었으며 1970년에 한자 의무교육이 잠시 중단되는데 이때 한자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던 세대가 성인이 된 90년대부터는 한자어 단어들에 대한 이해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김선래, 2021, p. 10). 이러한 배경에서 고유어를 적극 활용하게 된 것이다.

3차 용어 개정(1990년)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용어를 먼저 개정하였고 “[3차 개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체계적이고 우리말다운 용어를 만들기로 하였다”.¹⁷⁾ 4차 개정(1996년)에서는 3차 개정(1990년)에서 하지 못

한 용어들을 개정하였다. “갑자기 용어를 바꾸는 것에 대해 큰 저항을 우려하여 바꾸지 않았던 뼈 이름이나 장기 이름 등을 우리말 용어로” 바꿨다(고기석과 정인혁, 2017, p. 124).

용어는 사용의 편리에 맞추어 개정되었는데, “예로부터 사용하던 [고유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조금 다듬어 사용”한 경우도 있고, “[고유어]의 의미를 확대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기존의 고유어 어휘가 없는 경우는 “새로운 실마리를 잡아 창의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고기석과 정인혁, 2017, pp. 125-130; 송영빈 등, 2013, pp. 175-181). 이때 새롭게 창조된 용어들도 많이 있지만 과거 일상에서 사용하던 어휘들이 전문용어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주변으로 밀려나 있던 언어들이 중심, 즉 체계 안쪽으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 수용 3단계에서 해부학 용어가 한자어 용어에서 고유어로 변화했는데 이것은 한자어 용어가 한국어 체계에 맞추어 재조직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고유어 몸 표현이 중심을 차지하여 우선적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으로 재배치되며 한자어 용어는 주변으로 밀려나며 망각할 것이 된다. 망각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밀려나 잉여로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1955년 해부학 교재(김사달, 1955)에서 나타났던 고유어 몸 표현이 3차 용어 개정(1990년) 때 정식으로 해부학 용어로 채택된 용어들이 있다. 이미 존재하던 몸에 대한 고유어는 일상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정식 해부학 용어로는 주변으로 밀려나 있다가 다시 중심으로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표 8> 참조). 망각되어 있던 지식이 체계의 변화에 따라 다시 기억되는 것이다.

17) 이 과정은 의학 관계자들과 국어학자들이 함께 토론하며 용어에 대한 합의를 통해 진행됐으며 국립국어원의 전문용어 개정 방침에 맞추어 일관된 규칙(“일의성, (의미)투명성, 일관성, 적합성/친숙성, 경제성, 통일성, 파생성/생산성, 언어적 정확성, 모국어 선호, 쉬운 말”)을 갖고 개정하였다(송영빈 등, 2013, pp. 200-202).

표 8

1955년 해부학 교재의 용어와 개정된 고유어 용어
(김사달, 1955; 대한해부학회, 1978; 대한해부학회, 1990; 대한해부학회, 1996)

라틴어	1955년 용어	1판 용어	3판 용어	4판 용어
Diaphragma	가로막; 횡경막(橫膈膜)	횡격막(橫膈膜)	횡경막	가로막
Vesica biliaris	쓸개; 담낭(膽囊)	담낭(膽囊)	담낭[쓸개]	쓸개(주머니) [담낭]
Glandula parotidea	귀밑샘; 이하선(耳下腺)	이하선(耳下腺)	귀밑샘	귀밑샘
Rectum	곧창자; 직장(直腸)	직장(直腸)	직장	곧창자[직장]

특히 1955년도 해부학 교재에 등장한 고유어 용어와 한자어 용어가 3차 용어 개정과 4차 개정에서 자리를 바꾸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표 9> 참조).

표 9

1955년 해부학 교재의 용어와 개정된 고유어 용어
(김사달, 1955; 대한해부학회, 1978; 대한해부학회, 1990; 대한해부학회, 1996)

라틴어	1955년 교재	1판 용어	3판 용어	4판 용어
Pulmones	허파; 폐(肺)	폐(肺)	폐[허파]	허파[폐]
Ren	콩팥; 신장(腎臟)	신장(腎臟)	신장[콩팥]	콩팥[신장]
Intestinum tenue	작은창자; 소장(小腸)	소장(小腸)	소장 [작은창자]	작은창자 [소장]

그러나 체제의 전복이, 주변으로 밀려나 있던 모든 용어가 중심으로 다시 귀환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규칙에 맞는 용어들만 중심으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용어는 여전히 밀려나 있음을 볼 수 있다(<표 10> 참조). 4판 용어집(1996년)에 소개된 개정의 기본 방침을 보면 한자어 중에 고유어가 있는 경우는 이것을 사용하고 “고유어가 있더라도 낯춤말이나 상스럽게 느껴지는 말은 그대로 한자어를 사용한다”고 규정했다(대한해부학회, 1990, 일러두기).

표 10

고유어 용어가 채택되지 않은 사례

(김사달, 1955; 대한해부학회, 1978; 대한해부학회, 1990; 대한해부학회, 1996)

라틴어 표기	1955년 용어	1판 용어	3판 용어	4판 용어
Oesophagus	밥줄; 식도(食道)	식도(食道)	식도	식도
Trachea	숨통; 기관(氣管)	기관(氣管)	기관	기관
Cor	염통; 심장(心臟)	심장(心臟)	심장	심장
Vesica urinaria	오줌보; 방광(膀胱)	방광(膀胱)	방광	방광

‘요골’, ‘치골’과 같이 한자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과 ‘비골’, ‘장골’과 같이 동음이의어가 있는 용어들도 고유어로 바뀌었다. 노뼈의 경우는 팔의 움직임이 “노를 저을 때 노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며 척골의 경우, “한자어 ‘척(尺)’ 자를 풀어” 만든 용어라고 고기석과 정인혁(2017, p. 126)은 설명하였다(<표 11> 참조). 이러한 내용은 김과 박(Kim & Park, in press)의 연구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표 11

한자어에서 고유어로 바뀐 사례¹⁸⁾

(김사달, 1955; 대한해부학회, 1978; 대한해부학회, 1990; 대한해부학회, 1996)

라틴어 표기	1955년 용어	1판 용어	3판 용어	4판 용어
On nasale	비골(鼻骨)	비골(鼻骨)	비근골	코뼈[비근골]
Fibula	비골(腓骨)	비골(腓骨)	비골	종아리뼈[비골]
Radius	요뼈; 요골(橈骨)	요골(橈骨)	요골	노뼈
Ulna	자뼈; 척골(尺骨)	척골(尺骨)	척골	자뼈[척골]
Os Pubis	치골(恥骨)	치골(恥骨)	치골	두덩뼈[장골]
Os ilium	장골(腸骨)	장골(腸骨)	장골	엉덩뼈[치골]

3차(1990년)와 4차(1996년) 용어 개정에서는 고유어 용어로 변화하기도 했지만 “시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게끔 변화했다”(Kim & Park, in press). 해

18) 김사달(1955)과 대한해부학회(1978, 1990, 1996)의 원 자료와 김과 박(Kim & Park, in press)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재구성하였다.

부학 용어는 시각 자료와 떼려야 뗄 수 없는데, 이러한 근본적 특징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기 해부학 용어가 수용될 때는 ‘소근(笑筋)’이나 ‘견치근(犬齒筋)’은 ‘웃음근육’, ‘송곳니근육’이라는 뜻의 명사적 표현 혹은 정적인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였다(今田東, 1888/2018, p. 516). 이 용어가 1판 용어에서는 ‘하순하체근(下脣下掣筋)’, ‘구각거근(口角舉筋)’이었다가 3판 개정에서는 고유어 ‘입꼬리당김근’, ‘입꼬리내림근’, ‘입꼬리올림근’으로 움직임을 드러내는 표현을 씌우므로써 이 근육의 기능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시각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 걸맞는 적절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경제성보다는 의미투명성을 더 중시한 것이다.” 고유어로 바꾸었을 때 각각 6음절로 늘어났지만 의미는 훨씬 분명해졌다(Kim & Park, in press). 이 경우는 머릿속에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입꼬리를 내리는 동작을 떠올릴 수 있다(<표 12> 참조).

표 12

움직임이 드러나는 개정 용어¹⁹⁾

(대한해부학회, 1978; 대한해부학회, 1990; 今田東, 1888/2018; Kim & Park, in press)

라틴어 용어	『해부학』의 용어	1판 용어	3판 용어
M. Risorius	소근(笑筋)	소근(笑筋)	입꼬리당김근
M. depressor anguli oris	삼각이근 (三角頤筋)	하순하체근 (下脣下掣筋)	입꼬리내림근
M. levator anguli oris	견치근(犬齒筋)	구각거근 (口角舉筋)	입꼬리올림근

인체 부분의 기능을 머릿속에서 시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고 의미를 이해하고 발음하기 쉬운 용어로 바뀐 것은 해부학의 대중화와도 관련이 된다.

“이번에 펴낸 새 해부학용어 중에 사람 몸의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나, 뼈 이름 또는 큰 내장 기관 이름 같은 것은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사람이 일상 생활이나 각급 학교 교육 과정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한글용어로 바꾸었다”(대한해부학회, 1990, 머리말). 이처럼

19) 이마다 쓰카누(今田東, 1888/2018)와 대한해부학회(1978)의 원 자료와 김과 박(Kim & Park, in press)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3단계에서는 고유어 용어가 기호계 안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서 재조직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현대에 들어 인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해부학 용어가 의료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다면 현재는 스포츠 관련 종사자, 미술학도들도 해부학을 공부하고, 근래에는 환자들도 자신의 질병에 관심을 갖고 의학 용어에도 관심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해부학 용어의 사용층이 넓어지고 있어 고유어 용어는 대중화에 한 몫을 할 것이다.

3.4 4단계 안정화의 시기: 완전한 융합

고유어로 개정된 이후 해부학 용어를 조금씩 다듬으며 정착되도록 하는 시기로 5차(2005년), 6차(2014년) 용어 개정이 이루어졌다. 3차(1990년), 4차(1996년)에 개정된 고유어 용어를 사용하면서 조금씩 개선하였으며 “해부학 용어와 의학 용어집에서 같은 용어를 다르게 표현한 것”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대한해부학회, 2005, 머리말). 문화 수용 4단계에서 용어들의 완전한 흡수 과정이 일어난다. 이것은 언어 체계의 재조직화 뿐 아니라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에서도 완전한 흡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옆구리부위2: 주2) 수의학에서는 옆구리와 허구리를 구별해서 씀. 옆구리는 가슴부위에 속하고, 허구리는 배부위에 속함. 기어다니는 짐승의 옆구리는 볼록하고, 허구리는 오목함. 사람에서는 이를 구별하지 않고 옆구리로 사용함. (대한해부학회, 2014, p. 9)

척주뒤굽음1: 주1) 의학용어집 다섯째판에 맞추고, 병적인 경우는 ‘증’을 뒤에 붙였음. (대한해부학회, 2014, p. 26)

여기서 다른 분야라는 것은 비단 의학과 같은 학문 분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 글을 보면 법률 용어, 행정 용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1990년에 펴낸 『해부학 용어』 셋째판을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켜 의학의 다른 분야에까지 용어의 한글화에 대한 자극을 주었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렵고 딱딱하고 위압적이던 전문 학술 용어, 법률 용어, 행정 용어에까지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바꾸어 나가자는 새 바람을 일으키게 하였던 것은 꼭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대한해부학회, 1996, 머리말)

근래 출판되는 해부학 책들을 보면 과거의 한자 용어와 개정된 고유어 용어가 함께 사용된 경우도 있고 고유어 용어와 라틴어 용어가 표시된 책들이 있다. 개정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고유어 중심의 해부학 용어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4단계에서는 앞 절에서 언급한 해부학의 대중화도 본격적으로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 해부학 지식은 의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의료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지식이었지만, 현대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의료 관계자뿐 아니라 운동 선수들, 헬스 트레이너들, 운동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 예술가들도 해부학을 공부한다. 예술은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해부학 지식을 필요로 하고 스포츠 관계자들은 인체를 이해하여 몸의 건강함을 과시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고자 몸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한자어를 사용할 때는 해부학 용어가 이런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했지만, 익숙한 고유어의 사용은 해부학 지식의 대중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과거 한자어 용어를 사용할 때는 교육 받은 사람, 의학 관련 종사자들의 한정된 범위로 사용되었지만 고유어 용어가 누구나 쉽게 이해됨으로써 누구나 쉽게 해부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평준화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립들은 차후 필연적으로 문화적 평준화와 두 당사자들이 동등자로 포함될 수도 있고 더 향상된 질서의 새로운 기호계의 창조로 이끈다”(Lotman, 1990, p. 143)고 한 것처럼 한자어 용어와 고유어 용어의 긴장은 한국어 사용의 체계에 맞추어 감으로써 해부학 용어의 대중화를 이루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서양 근대 해부학이 20세기 초 한국 문화에 소개된 이후, 해부학 용어가 상이한 단계를 거쳐 한국어에 맞게 재조직화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같은 문화의 역동적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본고는 로트만의 문화 이론에 적용하였다. 로트만의 이론을 선택한 이유는 문화가 가진 보편적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복잡한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 요인을 반영하는 한국의 해부학 수용의 과정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해부학이 서구에서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이동한 것은 해부학 텍스트의 기호계 간의 이동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이후 해부학 용어가 한국 문화 체계에 맞추어 변화해 나간 것은 기호계 안의 체계의 변화로 파악할 수 있다. 해부학의 기호계 간 이동은 폭발로 야기되었고 폭발의 시기 한국의 주체는 수동적 수용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적극적 수용을 한 일본이 만든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해부학 수용은 1단계에서는 제중원의 해부학 교과서를 번역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내에 수용되었으며 이후 해부학 용어의 1차 개정과 2차 개정을 통해서 토착화의 밑바탕을 이루었다. 그리고 3차 개정과 4차 개정에서 대대적인 고유어화 개정을 이행하는데 이것은 본격적인 토착화를 이루었다고 본다. 5차 개정과 6차 개정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듬어가는 단계이다. 이 과정들을 기호계 안에서 발생하는 대화에서 수신의 과정으로 상정하였고 각각 1단계 수용된 문화의 이상화, 2단계 기존 텍스트의 복구, 3단계 기존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재조직화, 4단계 완전한 융합의 단계에 대입하였다. 로트만의 문화 수용의 단계는 메타적 차원의 기술이므로 한국의 해부학 수용에도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한국어 표기법의 변화 역시 기호계 내 또 다른 층위의 폭발로 보았고 이 폭발의 여파는 문화 수용의 3단계에서 드러났다.

1단계 수용의 단계에서는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긴장이, 2단계부터는 한자어 용어와 고유어 용어의 긴장이 이어진다. 서양의학이 힘의 경쟁에서 중심을 차지하면서 일어난 신체관의 변화는 일상 언어생활의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광복 후, 한자어 용어가 중심을 차지하였다가 점차 고유어

용어가 힘의 경쟁에서 중심을 차지하면서 해부학의 대중화, 다른 전문용어의 고유어화로도 영향을 미쳤다. 이후에는 또 다른 새로운 긴장 상태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문화의 역동적 변화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것이 언어와 텍스트의 다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권홍식. (1971). 인체해부학 1. 수문사.
김사달. (1955). 최신 인체해부학 도보. 수문사.
대한해부학회. (1978). 해부학용어 제1판. 최신의학사.
대한해부학회. (1990). 해부학용어 제3판. 계축문화사.
대한해부학회. (1996). 해부학용어 제4판. 계축문화사.
대한해부학회. (2005). 해부학용어 제5판. 아카데미아.
대한해부학회. (2014). 해부학용어 제6판. 아카데미아.
백상호. (1970). 기초 인체해부학. 최신의학사.
今田東. (2018). 해부학. (김필순, 번역). 2018년 소장자료총서. 서울: 국립한글박물관. (Original work published 1888)

<2차 자료>

- 고기석, 정인혁. (2017). 해부학용어가 걸어온 길. 해부 생물인류학, 30(4), 113-133.
고은숙. (2018). 최초의 한글 해부학 교과서 『해부학(1906)』의 서지와 번역 특성 고찰. 연세의사학, 21(2), 101-125.
국립한글박물관. (2018). 나는 몸이로소이다 도록: 개화기 한글 해부학 이야기. 국립한글박물관총서.
김경호. (2007). 일본어에서 차용된 의학용어 조사 연구. 日本語文學, 1(33), 3-20.
김선래. (2021). 일간신문의 한글 전용 표기 확대에 대한 연구: 『동아일보』,

-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1 면 머리 기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 김성도. (2003). 한국 언어학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론적 성찰. 인문언어, 5, 7-36.
- 김성수, 신규환. (2017). 몸으로 세계를 보다: 동아시아 해부학의 성립과 발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영수. (2018). 일본의 해부학 서적 번역과 한말 해부학 교과서. 연세의사학, 21(2), 79-99.
- 김활란. (2022). 나가사키(長崎)의 데지마(出島)와 난학(蘭學)에 대한 고찰. 동학학보, 63, 81-112.
- 박윤재. (2005). 의학사, 한국사를 습격하다 (신동원, 2004, 역사비평사) 서평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나다의 서평, 신동원 저]. 역사비평, 70, 427-433.
- 박준형, 박형우. (2006). 한국에서 최초로 발간된 해부학 교과서와 편찬 배경. 대한해부학회지, 39(6), 461-469.
- 박준형, 박형우. (2011). 제중원에서 『약물학 상권(무기질)』의 번역과 그 의미. 의사학, 20(2), 327-354.
- 박준형, 박형우. (2012). 홍석후의 『신편생리교과서』(1906) 번역과 그 의미. 의사학, 21(3), 477-512.
- 송영빈. (2009). 조어적 관점에서 본 전문용어의 의미 투명도. 일본학보, 80, 13-25.
- 송영빈, 은희철, 정인혁. (2013). 아름다운 우리말 의학 전문용어 만들기. 커뮤니케이션북스.
- 신동원. (2003). 조선총독부의 한의학 정책: 193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의사학, 12(2), 110-128.
- 엄창섭. (2018). 해설: 근대 해부학의 아버지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 A. Vesalius. 사람 몸의 구조: 베살리우스 해부도 (pp. 5-14). 그림씨.
- 이인직. (1906/2008). 혈의 누. (권영민 엮음). 뿔.
- 이해조. (1906/2008). 빈상설. (권영민 엮음). 뿔
- 한의학고전DB. (n.d.). 동의보감東醫寶鑑>내경편 권01. 2024. 1. 12.검색,
https://www.medicclassics.kr/books/8/volume/1#content_132

- 황상익. (1998). 한말 서양의학의 도입과 민중의 반응. *역사비평*, 44, 271-285.
- 阿知波五郎. (1976). 幕末明治初期 (1840-1887) 解剖学書 (内, 外) 目録について--とくに 19 世紀欧米解剖学書目録とその蘭訳書と和訳書との関係 [On catalogs of anatomical textbooks (domestic and foreign) from the late Edo and early Meiji periods (1840-1887)—particularly regarding catalogs of 19th-century European and American anatomical textbooks and their relationship to Dutch and Japanese translations.]. *日本医史学雑誌*, 22(3), 215-236.
- Avison, R. O. (2010). 올리버 R. 에비슨이 지켜본 근대 한국 42년: 1893-1935 (박형우, 번역). *청년의사*. (Original work written 1940)
- Kim, S. D. (2018). Les problèmes de la traduction du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dans le monde de l'écriture chinoise: Terminologie, épistémologie, réception [Problems of translating th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in the Chinese writing world: Terminology, epistemology, and reception]. *Cahiers du Centre de Linguistique et des Sciences du Langage*, 57, 7-24. <https://doi.org/10.26034/la.cdclsl.2018.105>
- Kim, S. D., & Park, S. (in press). A preliminary study on the evolution of anatomical terminology in Korea. In *TOTH Proceedings*.
- Kim, S. H. (2014). Lotmanian explosion: From peripheral space to dislocated time. *Sign Systems Studies*, 42(1), 7-30.
- Lotman, Y. M. (1990). *Universe of the mind: A semiotic theory of culture*. Indiana University Press.
- Lotman, Y. M. (2008). 기호계: 문화연구와 문화기호학 (김수환, 번역). *문화과지성사*.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Lotman, Y. M. (2014). *문화와 폭발* (김수환, 번역). 아카넷.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Lotman, Y., & Clark, W. (2005). On the semiosphere. *Sign Systems Studies*, 33(1), 205-229.

A Semiotic study on the reception and transformation of modern western anatomical terminology: Focusing on Yuri Lotman's cultural theory

Soyeon Park

Department of Linguistics, 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ception and transformation of modern Western anatomical terminology in Korea from a semiotic perspective. Anatomical terminology was selected as a case because it offers a particularly clear illustration of the introduction of Western knowledge into Korea and represents one of the earliest areas of modern Western disciplinary knowledge to undergo translation. Drawing on Yuri Lotman's cultural semiotics, the study interprets the reception of anatomical terminology as a spatial movement across cultural boundaries and its subsequent transformation as a temporal process of internal reorganization. This theory provides a useful framework for examining the dynamic mechanisms of culture involved in the reception and transformation of anatomical terminology. Within this semiotic system, tension initially arises between traditional and Western medicine, followed by tension between Sino-Korean and native Korean terms. These successive tensions can be understood as struggles over what would occupy the cultural center. Korean anatomical terminology has undergone six revisions. To examine these changes, the study divides the process of reception and transformation into four periods: the reception period, the foundation period, the transition period, and the stabilisation perio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are then analyzed in relation to Lotman's four stages in the reception of dialogue.

Keywords: Cultural Translation; Vernacularization of anatomical terminology; Lotmanian Semiotics; the Reception and Transformation

키워드: 문화번역, 해부학 용어의 토착화, 로트만, 수용과 변용

박소연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박사 수료

chibymaruko@hanmail.net

논문 투고일: 2026년 8월 4일

1차 심사 완료일: 2026년 9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6년 9월 8일

게재 확정일: 2026년 9월 15일